

# 우리은행, '위비핀테크Lab 2기' 출범...더코더·엠로보 등 스타트업 5곳 선정

손정호 기자 | 승인 2017.04.04 16:07

“위비핀테크랩 통해 다양한 협업 지원, 핀테크·금융권 상생관계 발전 일조”



[일요경제 = 손정호 기자] 우리은행은 3일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지원센터 '위비핀테크 Lab' 2기 선발을 완료하고 정식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.

예비창업자와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2월 접수를 받아 지난달 1차 서류심사와 2차 프리젠테이션 등 13명의 심사위원들이 참여하는 면접, 다각도의 사업가치 점검을 거쳐 최종 선발했다는 것.

2기 선발 스타트업 기업은 더코더(디지털이미지코딩), 엠로보(투자정보큐레이션), 엘핀(위치기반인증), 턴온(자동이체플랫폼), 트라이월드홀딩스(차량수리보증플랫폼) 등 총 5곳이다. 향후 최대 1년간

무상으로 사무공간과 부대시설을 이용하며 금융·IT 교육, 특허·법률 상담 및 컨설팅, IT시스템, 국내외 투자자 연계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고 설명했다.

또한 우리은행은 '위비핀테크 Lab'에 대해 작년 8월 약 100평 규모로 서울 영등포에 마련했으며, 벤처 캐피털·IT기업·국내외 엑셀러레이터 등 15개 멘토기관 유치, 정부의 '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사업' 지정 등 체계적인 스타트업 지원환경을 갖춰 오픈한 이래 올해 2기를 맞이했다고 덧붙였다.

작년 선발된 핀테크랩 1기 기업들은 빅데이터, 로보어드바이저, 인공지능 등 분야의 총 7개 업체로, 입주기간 중 육성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6건의 정식 서비스 출시, 약 25억 원의 외부투자유치 및 21건의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등 높은 사업 성공율과 의미 있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.

특히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 등과 연계해 플랫폼 사업제휴 및 상품서비스 개발, 글로벌 마케팅 방안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주장이다.

우리은행 관계자는 "일반적인 소규모 벤처 창업자들의 경우 다른 회사와 기술제휴나 업무제휴를 맺고자 해도 만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갖가지 제도적 금융 제약에 부딪혀 창업자가 개발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"이라며 "열심히 만든 아이디어가 1년 안에 투자유치 및 창업에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위비핀테크랩을 통해 다양한 협업과 지원을 제공하고 핀테크와 금융권의 상생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겠다"고 말했다.



손정호 기자 wilde18@ilyoeconomy.com